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성과에 대한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효과 분석*

신혜숙(申惠淑)**
민병철(閔丙哲)***
남수경(南秀庚)****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와 학생별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이하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학생별 취업성고가 학생 개인이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와 사업학교 목록을 연계하여 사용하였고, 분석자료의 위계적 특성을 살려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사업대학보다 사업대학의 학생들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이 취업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사업이 취업성과 중 취업여부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소득 및 직업지위 등 취업의 질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사업효과가 대학특성에 따라서는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학생의 특성, 즉 취업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여학생과 인문계열 학생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의 취업률을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의 개별적 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외에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과 같은 대학 기반 취업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대학의 취업률 개선도와 개선요인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취업지원사업을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프로그램 참여 및 유용도, 취업성과, 소득 및 직업지위, 다층모형

* 이 논문은 본 논문은 2013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귀한 의견 주신 토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강원대학교 조교수,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석사, 교신저자

**** 강원대학교 부교수, 공동저자

I. 서론

최근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성가에 대한 대학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는 고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에도 대학 졸업생 중 취업한 사례가 59.3%에 머물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는 대학 책무성 평가의 주요지표로 졸업생의 취업률을 활용하여 취업성가에 대한 각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취업성가에 대한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려는 정책은 취업성과의 공시와 취업성가에 기반한 재정지원 및 구조개혁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로, 2008년부터 추진된 대학 정보공시제에 따라 각 대학의 학과별 취업률이 대학알리미 사이트(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되고 있다. 공시된 취업률은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할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근거로, 대학이 유능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재학생을 재등록시키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 취업률은 재정지원사업의 대상 선정과 책무성 평가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지원되는 대학교육역량사업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지원대학 선정과정에서 취업률은 평가점수 중 20~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활용되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 예정인 대학구조개혁에서도, 대학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라 각 대학은 공시 이후 각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고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현장중심의 수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2014; 이정미 외, 2010; 최은옥 외, 2011).

정부는 청년층 고용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원을 직접 대학에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 ‘대학취업지원관사업’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여 전자는 취업상담 및 직업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후자는 대학 내 고용정보센터의 기능을 하는 조직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 1. 11). 다만 두 사업의 효과는 수혜학생들의 취업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과거 수행된 유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을 통한 청년층 고용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사업은 청년층 고용지원정책에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정부의 시너지 효과를 의도한 최초의 사업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효과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의 취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확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분석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효과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GOMS 2009)' 자료와 사업대학 목록을 연계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수준에서 사업여부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도움정도를 비교·분석하였고,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취업성과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하였다. 취업성과는 취업여부 외에 소득이나 직업지위 등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대학의 설립유형과 소재지 등의 배경변수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취업에 대한 도움정도를 높였는가?

둘째,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이 학생들의 취업성과(취업여부, 소득, 직업지위)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시행 및 성과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이하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사업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대학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인 청년실업해결 노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노동부, 2005). 기존의 청년실업대책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 실업자의 취업지원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본 사업은 '대학 과정'에서의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대학들이 노동시장의 주된 인적자원 공급자이면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여 청년실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미흡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사업의 재정지원 대학은 각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급(전문대/4년제대)이나 대학 소재지(수도권/지방) 등에 따라 고르게 지원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예산 지원액은 학생 수에 비례해 지원 상한액을 두고 대학의 사업계획에 따라 배부되었다. 사업 예산은 사업직전년도 취업지원예산에 비해 증액된 예산 중 국가가 75%를 지원하고, 각 대학이 25%를 대응 투자(matching fund)하도록 하였다. 사업 첫 해인 2006년에는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하여, 105개 대학(수도권 4년제대 26개교, 수도권 전문대 17개교, 지방 4년제대 31개교, 지방 전문대 22개교, 추가지정 9개교 포함)에 대해 총 100억 원이 지원되었다(노동부, 2006a; 2006b). 이후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20%(19개교)를 제외한 대학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예산이 계속 지원되도록 하고, 매년 추가로 지원 대상

을 확대하였다(노동부, 2007; 2008).

본 사업은, 각 대학이 직업 진로개발·지도 프로그램과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사업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취업지원실을 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던 직업지도 프로그램(Career Assistant Program; CAP)이나 직업개발 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Program; CDP)을 학교 내에서 수행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취업교과목을 운영하거나 잡카페 혹은 잡섹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노동부, 2008), 그 결과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지역이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각 학교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으로는 취업박람회, 취업 관련 교육, 취업 캠프, 취업특강, 취업동아리와 커뮤니티 육성, 취업 준비 프로그램, 취업 멘토링, 직업 체험 프로그램, 진로·취업 인·적성 및 심리검사, 진로·취업 상담 프로그램, 취업 인프라 구축, 전공 관련 프로그램, 취업담당자 능력개발 등이 있다(이영대·윤형한, 2007).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임언 등(2006)의 연구에서는 사업 참여 대학의 취업지원 인프라가 확충되어 취업지원부서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취업지원인력이 확충됨과 동시에 전문성이 신장되어 대학의 취업지원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대학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장기적으로 취업률이 제고되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영대와 윤형한(2007)의 연구 결과 역시 임언 등(2006)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취업담당자 대상 조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대학에서 취업담당자들이 증원되고 이들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를 찾는 학생들이 증가하였고, 취업지원확충사업을 통해 취업률이 높아졌거나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상호 등(2009)의 연구에서는 3년 연속 지원받은 학교 82개 대학과 1년만 지원받은 58개교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취업지원부서의 부처급 비율이 증가하는 등 물적·인적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한 잡 카페가 주로 증가한 반면, 다른 인프라는 그리 많이 확충되지는 않았고, 인적 측면에서도 사업 인력은 늘어났으나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은 그리 확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양한 자격증 및 어학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민간업체에 위탁이 용이한 경력관련 학습프로그램과 이력서 및 면접에 관한 구직스킬 프로그램이 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내 취업지원부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방문하는 빈도가 매우 낮으며, 방문 이유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구직 및 취업정보를 얻는 등의 단순한 이유가 많았고, 교내 취업지원부서를 통해 양질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영

대와 윤형한(2007)는 사업대학의 취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 취업캠프가 가장 효과적이고, 다음으로 이력서쓰기나 면접클리닉 등의 취업준비 프로그램, 취업관련교과목, 취업특강, 진로와 취업상담 등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취업박람회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외에 취업멘토링,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순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강원준 등(2008)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 254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동아리, 취업박람회, 학기별 강좌, 교내 취업특강, 취업역량강화캠프의 순으로 참여자 대비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입식 또는 단기적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가운데는 모의면접의 효과가 크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학졸업자의 실제 취업성과가 아닌 취업담당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취업성과에 관련되는 개인 및 대학 수준의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바탕으로 대졸자의 취업여부 및 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신혜숙 등(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로관련상담이나 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이 된 경우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직장체험의 경우 학생이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수준 역시 취업 성과에 영향을 주었는데, 학점인정 교과목에 참여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제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별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사업대학과 비사업대학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및 유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2.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변수

대학졸업생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 개인 수준에서부터 대학 요인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공정하고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대학과 비사업학교의 특징 차이와 학생구성의 차이로 인한 취업성과의 차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학생 및 대학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많은 연구는 대학졸업생의 취업성과가 학생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방하남, 김기현, 2001; 박환보, 김성식, 2011; 채창균, 김태기, 2009). 가장 많은 연구

에서 제시되는 취업 관련 요인은 학생들의 가정환경요인으로서, 부의 학력이나 가구소득 등의 가정배경이 대학졸업생의 취업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과 김기현(2001)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지위획득 과정을 분석한 결과, 부의 학력이 자녀의 직업 지위를 획득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구소득 역시 대학생들의 취업 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데, 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으며(채창균, 김태기, 2009; 황여정, 백병부, 2008), 대학생의 직업지위와 임금수준 역시 부모의 가구소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박환보, 김성식, 2011; 황여정, 백병부, 2008).

다음으로 학생성별이 대학졸업자의 취업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대체적으로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취업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재호, 2004; 김정숙, 2009; 박환보, 김성식, 2011; 방하남, 김기현, 2001; 임천순, 양병무, 2006; 채구묵, 2007; 황여정, 백병부, 2008). 대학졸업생의 취업 여부 외에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학생성별의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남학생의 취업의 질적 수준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았으며(정지선 등, 2011),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 역시 남학생이 더 높았다(황여정, 백병부, 2008).

이 외에도 대학학점(박성재, 반정호, 2006; 채구묵, 2007; 채창균과 김태기, 2009; 황여정, 백병부, 2008)과 대학전공(채창균, 김태기, 2009; Eide, 1994; Rumberger & Thomas, 1993)이 대학졸업자의 취업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교육계열 졸업생의 취업 성과는 이공계열보다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의약계열은 취업 성과가 다른 전공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황여정, 백병부, 2008; 채창균, 김태기, 2009). 대졸청년층 취업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정지선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계열 졸업생의 경우 고용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공학계열이나, 의약계열, 사회계열 졸업생의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타 전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 수준에서 대학졸업자의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학의 서열과 대학의 소재지 등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학의 서열이 취업 성과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상위권 대학의 졸업자들은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의 졸업자보다 취업한 직장의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이규용, 김용현, 2003), 명문대 졸업생이 비명문대 졸업생에 비하여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임천순, 양병무, 2006).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후 임금을 분석한 결과, 사립명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임금에 있어서 프리미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ewer, Eide, Ehrenberg, 1996).

대학소재지에 따른 취업 성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황여정과 백병부(2008)의 연구 결과, 서울 지역 대학의 졸업생들은 다른 지역의 대학 졸업생에 비하여 취업의 가능성이 더 높았고,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정규직에 취업하는 비율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

제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들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이 지방 대학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보다 유의하게 높으며(신혜숙 외, 2012; 채창균, 김태기; 2009), 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더 높고(류장수, 2005),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삼, 2010).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환보와 김성식(2011)은 서울 4년제, 기타 4년제, 전문대로 구분하여 대학졸업생들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서울 4년제 대학이 기타의 대학보다 취업성고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대학 수준의 요인을 요약해보면, 학생 수준에서는 학생성별과 부모학력, 가구소득, 전공계열, 대학학점 등이, 학교 수준에서는 대학 설립유형과 4년제 여부, 대학 소재지 등이 학생들의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생 및 대학의 특성이 정부지원의 대학 취업지원 사업의 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차원의 취업지원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되 취업지원 사업 참여 여부와 학생 및 대학 수준의 변수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수행된 취업지원확충사업(이하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이하 GOMS 2009)와 사업학교 목록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GOMS 2009는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18,011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에 조사가 수행되었다. GOMS 2009에는 2~3년제대(전문대)와 4년제대 및 교육대학 졸업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이 아닌 교육대학 졸업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 취업경향이 일반적이지 않은 의약계열 및 예체능계열 졸업자 또한 제외하였다. 이 자료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목록을 연계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취업여부에 대한 사업효과는 대학원 진학을 제외한 전체 경제활동자(취업과 미취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취업의 질에 대한 사업효과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대학 수준에서는 학교 수는 307개교이며, 학생 수준에서는 경제활동자는 10,431명, 취업자는 9,172명이었다.

2. 주요 분석변수

본 연구의 정책변수는 사업 참여여부로서, 사업학교인 경우 1, 비사업학교인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종속변수인 취업성과는 취업여부와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소득 및 직업지위로 구성하였다. 취업여부는 조사 시점 기준 취업한 경우 1, 취업하지 못한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소득은 만원 단위로 측정된 값을 로그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직업지위는 GOMS 자료에 포함된 직업코드를 Ganzeboom 척도(Ganzeboom & Treiman, 2003)의 점수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 취업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바탕으로 선별되었다. 먼저 학생 수준의 통제변수는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대학전공계열, 대학학점 등이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1, 여학생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부모학력은 최종적으로 다닌 학교급과 졸업여부를 고려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최종 교육연한으로, 중퇴한 경우는 이전 학교급과 중퇴한 학교급의 교육연한의 중간값으로 변환하였다. 가구소득은 선택지의 범위 중 백만원 단위에서 중간값으로 취하여 사용하였다. 대학 전공은 인문 계열을 기준으로, 사회, 교육, 자연, 공학 계열에 대해 각각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대학학점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변환하였다.

대학수준에서는 학교급(2~3년제 전문대와 4년제 대학)과 소재지(수도권과 지방)와 그리고 설립유형(국·공립대와 사립대)을 결합하여 구분변수를 구성하였다. 세 변수를 모두 활용하기에는 분석자료의 대학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전문대는 국·공립대가 적고¹⁾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보다 소재지에 따른 취업성과의 차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소재지에 따라서만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 전문대로 구분하였다. 대학은 수도권 소재 국·공립대가 4개교에 불과하고 취업성가에 있어 수도권 소재 사립대보다 지방 소재 대학과 상대적으로 더욱 이질적으로 판단하여 두 범주를 합쳐 수도권 대학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지방 국·공립대는 지방 사립대와 이질적이라고 판단하여 분리하여 지방 국·공립대와 지방 사립대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 수도권 전문대, 지방 국·공립 대학, 지방 사립대학, 지방 전문대 등으로 구분하여, 지방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4개 범주에 대해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유용도를 살펴보기 위해 GOMS 자료에 포함된 7가지 취업지원프로그램(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 관련 상담, 면접기술/이력서작성, 취업캠프 등)의 참여여부와 도움여부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도(전체학생 대비 참여학생의 비율)와 유용도(전체학생 대비 도움을 받은 학생의 비율)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1) 전문대 144개교 중 12개교가 국공립이었으며, 이중 3개교가 수도권에 9개교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업대학과 비사업대학의 학생특성 차이 분석 (χ^2 분석)

단위: 명(%)

		학생 전체			취업자		
		사업대학 (8,368명)	비사업대학 (2,063명)	χ^2	사업대학 (7,380명)	비사업대학 (1,822명)	χ^2
성별	남	4,991 (81.3)	1,146 (18.7)	11.45**	4,404 (59.9)	1,020 (56.0)	9.36**
	여	3,377 (78.6)	917 (21.4)		2,946 (40.1)	802 (44.0)	
전공계열	인문	1,096 (84.7)	198 (15.3)	38.96***	926 (12.6)	165 (9.1)	37.96***
	사회	2,635 (77.8)	750 (22.2)		2,325 (31.6)	668 (36.7)	
	교육	573 (77.3)	168 (22.7)		517 (7.0)	158 (8.7)	
	자연	1,225 (82.9)	253 (17.1)		1,049 (14.3)	218 (12.0)	
	공학	2,839 (80.4)	694 (19.6)		2,533 (34.5)	613 (33.6)	

*p<.05, **p<.01, ***p<.001.

<표 2> 사업대학과 비사업대학의 대학특성 차이 분석 (χ^2 분석)

단위: 개교(%)

		사업대학 (185개교)	비사업대학 (122개교)	χ^2
대학구분	수도권 대학	39 (65.0)	21 (35.0)	15.03**
	수도권 전문대	26 (56.5)	20 (43.5)	
	지방 국공립대	18 (81.8)	4 (18.2)	
	지방 사립대	56 (69.1)	25 (30.9)	
	지방 전문대	46 (46.9)	52 (53.1)	

*p<.05, **p<.01, ***p<.001.

<표 3> 사업대학과 비사업대학의 학생특성 차이 분석 (t 검증)

	학생 전체			취업자		
	사업대학 (8,368명)	비사업대학 (2,063명)	t	사업대학 (7,380명)	비사업대학 (1,822명)	t
부모학력(연한)	12.65 (2.94)	12.12 (3.04)	7.19***	12.64 (2.95)	12.10 (3.07)	6.71***
가구소득(100만원)	3.41 (1.94)	3.08 (1.96)	7.05***	3.44 (1.96)	3.06 (1.95)	7.44***
대학학점(100점 만점)	87.46 (4.71)	87.91 (5.02)	-3.86***	87.55 (4.71)	88.00 (5.00)	-3.48**

*p<.05, **p<.01, ***p<.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위의 분석결과를 보면, 사업대학의 남학생 비율이 더 높으며, 전공계열 비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업대학의 경우 이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비율이 높고,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의 비율이 낮았다. 사업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부모학력이나 가구소득이 비사업대학에 비하여 높았으며, 반대로 대학학점은 비사업학교 재학생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학생들의 취업성공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때, 이들 배경변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는데, 먼저 취업지원확충사업의 사업대학과 비사업학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도와 유용도 평군을 프로그램별로 비교하고, 다음으로 취업성공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사업대학과 비사업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7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별로 평균 차이 검증(t-test)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전체 경제활동자(취업자와 미취업자) 자료와 취업자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둘째, 취업여부, 소득, 직업지위 등의 취업 성과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하였다. 취업성공은 학생 개인 수준의 자료이고, 취업지원 사업 참여여부는 대학 수준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분석자료의 특성을 살려 2수준 다중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의 특성에 맞는 분석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이분변수인 취업여부가 종속변수일 때는 일반화된 위계적 선형 모형(HGLM)을,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소득과 직업지위일 때는 위계적 선형 모형(HLM)을 적용하였다(Raudenbush & Bryk, 2002).

이때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 및 대학 수준의 요인을 통제하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학생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인 상호작용모형을 종속변수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취업여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모형

먼저 전체 경제활동자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졸업생의 취업여부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화된 위계선형모형은 다음과 같다.

(학생수준)

$$\ln\left(\frac{\phi_{ij}}{1-\phi_{ij}}\right) = \beta_{0j} + \beta_{pj}(\text{학생수준 통제변수})_{\pi_j} + \epsilon_{ij}, \quad \epsilon_{ij} \sim N(0, \sigma^2), \quad p=1\sim 8$$

(대학수준)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사업여부})_j + \sum_{q=2}^5 \gamma_{0q}(\text{학교유형})_{qj} + \sum_{r=6}^9 \gamma_{0r}(\text{학교유형*사업여부})_{rj} + u_{0j}$$

$$u_{0j} \sim N(0, \tau_{00}),$$

$$\beta_{pj} = \gamma_{p0} + \gamma_{p1}(\text{사업여부})_j$$

이때, ϕ_{ij} 는 대학 j의 학생 i가 취업할 확률이며, β_{0j} 는 학생 수준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각 대학의 취업확률의 로짓이며, β_{pj} 는 학생 수준의 통제변수가 취업확률 로짓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대학 수준에서 γ_{01} 은 취업여부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며, γ_{p1} 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주는 상호작용항이다. 그리고 γ_{0q} 는 학교 특성에 따른 취업확률 로짓이며, γ_{0r} 은 학교특성과 사업 참여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나. 소득과 직업지위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모형

다음으로 취업한 학생자료를 바탕으로 연속변수인 소득과 직업지위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학생수준)

$$Y_{ij} = \beta_{0j} + \beta_{pj}(\text{학생수준 통제변수})_{\pi_j} + \epsilon_{ij}, \quad \epsilon_{ij} \sim N(0, \sigma^2), \quad p=1\sim 8$$

(대학수준)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사업 여부})_j + \sum_{q=2}^5 \gamma_{0q}(\text{학교 유형})_{qj} + \sum_{r=6}^9 \gamma_{0r}(\text{학교 유형*사업 여부})_{rj} + u_{0j}$$

$$u_{0j} \sim N(0, \tau_{00}),$$

$$\beta_{pj} = \gamma_{p0} + \gamma_{p1}(\text{사업 여부})_j$$

이때, Y_{ij} 는 대학 j 의 학생 i 가 취업 후 받게 된 소득 또는 취업한 직업의 지위점수(이하 취업 성과)이다. β_{0j} 는 학생 수준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대학별 취업성과이며, β_{pj} 는 학생 수준의 통제변수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대학 수준에서 γ_{01} 은 취업성과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며, γ_{p1} 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주는 상호작용 항이다. 그리고 γ_{0q} 는 학교 특성에 따른 취업성과이며, γ_{0r} 은 학교특성과 사업 참여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다.

IV. 분석 결과

1.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 및 유용도에 대한 사업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참여도와 유용도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대학과 비사업대학에서 운영되는 7가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도와 유용도 자료를 비교하였다. GOMS 조사에서 수집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직업심리 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관련 상담, 면접기술/이력서작성, 취업캠프 등인데, 대학별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참여도)과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유용도)을 비교하였다. 전체 경제 활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사업대학이 비사업대학에 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고,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교내취업 박람회인데, 사업대학이 비사업대학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도가 10%p 이상 높았으며, 유용도 또한 7%p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 학점인정 교과목과 면접기술 및 이력서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취업박람회보다 전반적인 참여도와 유용도는 낮았지만, 사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교내취업박람회와 같이 참여도 차이는 8~10%p, 유용도 차이는 6~7%p

정도였다. 직장체험의 경우 참여도 차이는 5~6%p로 중간 정도였으나, 유용도의 차이는 5%p 내외로 나타났다. 직업심리검사의 경우 참여도 차이는 6~7%p, 유용도 차이는 5%p 정도로 사업효과가 있었다. 취업캠프의 경우 전반적으로 참여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참여도 차이는 4~5%p, 유용도 차이는 3%p 내외로 나와 참여비율을 고려했을 때 그 차이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진로관련 상담의 경우 참여도는 4~5%p 정도 차이가 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으나, 유용도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업대학과 비사업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활용도 차이 분석

	경제활동자(취업자+미취업자)						취업자					
	참여도(%)			유용도(%)			참여도(%)			유용도(%)		
	사업 대학	비사업 대학	t	사업 대학	비사업 대학	t	사업 대학	비사업 대학	t	사업 대학	비사업 대학	t
학점인정 교과목	30.24 (13.29)	20.97 (18.63)	4.75***	24.37 (18.55)	17.43 (16.86)	3.94***	30.08 (13.85)	20.45 (18.21)	4.97***	24.65 (18.93)	17.25 (16.87)	4.15***
직장 체험	18.55 (12.10)	13.98 (16.24)	2.66**	15.40 (32.54)	10.56 (11.12)	3.74***	18.93 (12.46)	12.79 (15.77)	3.80***	15.96 (32.80)	9.58 (10.41)	4.90***
직업 심리검사	32.54 (14.02)	26.11 (21.64)	2.91**	24.42 (25.91)	19.15 (17.86)	2.90**	32.80 (14.58)	25.18 (22.57)	3.30**	24.54 (26.11)	19.08 (18.40)	2.91**
교내취업 박람회	25.91 (13.40)	15.60 (17.04)	5.91***	18.70 (17.24)	11.48 (13.73)	5.03***	26.11 (14.20)	15.79 (18.09)	5.58***	18.86 (17.67)	11.40 (14.57)	4.87***
진로관련 상담	17.24 (11.04)	13.30 (15.43)	2.44*	13.48 (24.39)	11.39 (14.32)	1.45	17.67 (11.65)	12.68 (15.23)	3.08**	13.79 (24.73)	10.98 (14.19)	1.96
면접기술 이력서작성	24.39 (11.86)	16.62 (18.63)	4.09***	20.66 (9.90)	14.53 (16.58)	3.59***	24.73 (12.09)	16.32 (20.01)	4.17***	21.02 (10.12)	14.18 (18.20)	3.71***
취업 캠프	9.90 (7.93)	5.58 (11.72)	3.86***	7.69 (30.08)	4.81 (11.46)	2.67**	10.12 (8.42)	4.89 (10.90)	4.73***	7.81 (.00)	4.15 (10.54)	3.49***

*p<.05, **p<.01, ***p<.001, 사례수: 사업대학 185개교, 비사업대학 122개교, 괄호는 표준편차

2. 취업성과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취업여부와 소득, 직업지위 등의 취업성과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생 및 대학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했을 때, 대학차원의 취업지원확충사업 참여여부가 학생들의 취업여부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학생성별, 가구소득, 전공계열, 대학학점, 대학유형 등이 취업에 성공할 확률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공 계열에 따라서는 인문계열에 비해 사회계열과 교육계열, 공학계열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계열과 인문계

열 간의 취업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대학학점이 높을수록, 지방 사립대에 비하여 다른 유형의 대학들이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표 5> 취업여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절편		1.498***	.131	4.473
사업효과	사업여부	.026	.087	1.026
학생배경	성별	.167**	.064	1.182
	부모학력	-.013	.012	0.987
	가구소득	.064**	.018	1.067
전공계열 (인문계열 기준)	사회계열	.320**	.095	1.378
	교육계열	.534**	.159	1.705
	자연계열	.109	.114	1.115
	공학계열	.379***	.096	1.461
대학학점	(100점 만점)	.042***	.008	1.042
대학유형 (지방사립대 기준)	수도권대학(국공립+사립)	.269**	.093	1.308
	수도권 전문대	.253*	.113	1.288
	지방 국공립대학	.277*	.120	1.320
	지방 전문대	.377**	.117	1.457
분산	대학수준	.047***		
사례수		10,431명		

*p<.05, **p<.01, ***p<.001.

다음으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소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일부 나타났다. 이 외에 학생성별과 부모학력, 가구소득, 전공계열, 학점, 대학유형 등이 취업 후 소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대학유형에 따라서는 지방 사립대보다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공립대학의 졸업생 소득이 높았다. 지방 사립대와 지방 전문대는 소득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지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학교 졸업생의 직업지위가 비사업학교의 졸업생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1.59점이 높았다. 이 외에도 부모의 학력과 전공계열, 대학학점 및 대학 유형이 직업지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공립대학은 지방사립대보다 직업지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 전문대는 지방 사립대에 비하여 직업지위가 유의미

하게 낮았다. 즉, 지방 사립대의 경우 취업을 하는 데에는 전문대보다 불리했으나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는 전문대보다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취업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통제모형)

		소득(자연로그)		직업지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4.842***	.030	45.704***	.749
사업효과	사업여부	.037†	.021	1.586**	.564
학생배경	성별	.251***	.010	.608†	.314
	부모학력	-.003*	.002	.120*	.055
	가구소득	.007*	.003	.097	.083
전공계열	사회계열	.117***	.017	.993*	.472
(인문계열	교육계열	.048*	.022	4.282***	1.071
기준)	자연계열	.051**	.018	1.966**	.676
	공학계열	.136***	.017	7.591***	.513
대학학점	(100점 만점)	.006***	.001	.257***	.030
대학유형	수도권대학(국공립+사립)	.155***	.027	3.313***	.546
(지방사립대	수도권 전문대	-.066**	.022	-5.714***	.574
기준)	지방 국공립대학	.073**	.026	1.448†	.819
	지방 전문대	-.032	.021	-8.735***	.559
분산	학생수준	.156		166.484	
	대학수준	.012***		3.961***	
사례수		9,172명		9,172명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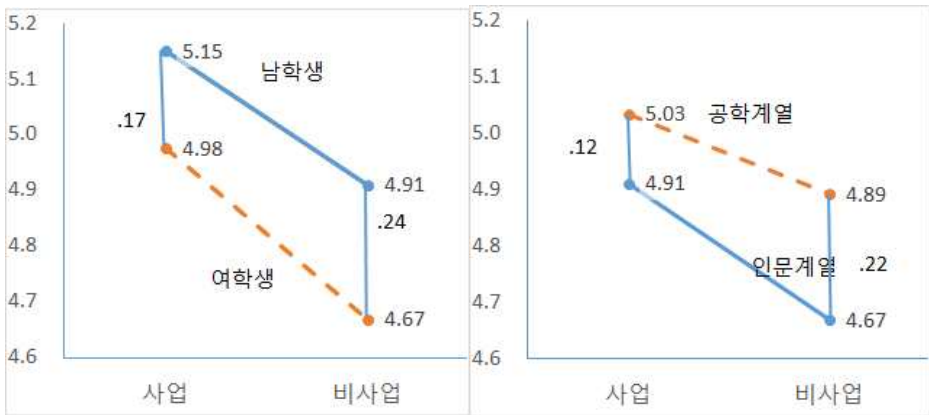
요약하면, 사업에 참여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득과 직업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취업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상호작용효과모형)

		소득(자연로그)		직업지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4.669***	.050	44.066***	1.680
사업효과	사업여부	.242***	.054	3.588*	1.772
학생배경	성별	.307***	.022	.384	.728
	성별*사업여부	-.067**	.024	.277	.807
	부모학력	-.007*	.003	.007	.118
	부모학력*사업여부	.005	.004	.145	.133
	가구소득	.000	.005	.206	.169
	가구소득*사업여부	.009	.006	-.148	.194
	전공계열	사회계열	.233***	.037	3.642**
(인문계열 기준)	사회계열*사업여부	-.136**	.040	-3.305*	1.415
	교육계열	.210***	.048	2.254	2.223
	교육계열*사업여부	-.191**	.053	2.698	2.524
	자연계열	.194***	.044	.893	1.521
	자연계열*사업여부	-.169**	.047	1.283	1.683
	공학계열	.223***	.038	9.581***	1.378
	공학계열*사업여부	-.100*	.042	-2.403	1.486
대학학점 (100점 만점)	대학학점	.005**	.002	.262***	.063
	대학학점*사업여부	.001	.002	-.006	.072
대학유형 (지방사립대 기준)	수도권대학(국공립+사립)	.118*	.054	2.962†	1.786
	수도권대학*사업여부	.056	.060	.477	1.864
	수도권 전문대	-.002	.052	-4.920**	1.448
	수도권전문대*사업여부	-.091	.060	-1.256	1.567
	지방 국공립대학	.124	.080	3.019	4.828
	지방국공립대학*사업여부	-.064	.086	-1.785	4.883
	지방 전문대	.025	.047	-8.131***	1.349
지방전문대*사업여부	-.092†	.055	-.914	1.485	
분산	학생수준	.155		165.860	
	대학수준	.010***		4.277***	
사례수		9,172명		9,172명	

†p<.10, *p<.05, **p<.01, ***p<.001.

다음으로 소득과 직업지위에 대한 취업지원확충사업의 효과가 학생의 특성이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사업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취업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 후 소득이 낮았으나, 사업학교를 졸업한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즉, 사업의 효과가 여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었다. 다음으로 전공계열별 취업성과의 차이 역시 사업대학의 졸업생에서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문계열과 다른 계열의 소득차이가 사업학교 졸업생 사이에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취업의 질적 수준(소득의 로그값)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반면 직업지위에 대해서는 사업의 차별적 효과가 소득의 경우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 중 일부가 줄어들어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간의 차이가 매우 작아졌다. 대학 유형에 따른 사업의 차별적 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직업지위에 대한 사업의 효과는 학생 특성이나 대학의 특성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높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9)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 수행을 통해 대학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유용도를 제고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성공에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사업효과가 학 대학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여부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유용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대학의 학생들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성도가 더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난 이전 연구(신혜숙 외, 2013)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업학교 학생들이 취업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고, 프로그램의 유용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이런 지표가 선정기준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재정지원사업의 결과 참여도와 유용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사업대학으로 선정되었을 개연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한 이전과 이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율 및 만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이상호 외, 2009; 임언 외, 2006), 사업 참여 이후에 참여율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사업에 먼저 참여한 학교에서 더 높은 효과가 있었다. 재정지원사업으로 인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유용도가 실제로 더 높아진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추후연구를 통하여 사업학교 외에도 비사업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취업여부와 소득 및 직업지위와 같은 취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여부 외에도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 수준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참여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소득과 직업지위와 같은 취업의 질적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대학 졸업생의 소득 및 직업지위가 비사업대학의 졸업생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학생 및 대학의 다른 변수를 고려하고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정부의 대학을 통한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학생 또는 대학의 특성에 따른 사업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상호작용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유형이나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특성에 따라서는 사업효과는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유형이나 소재지에 따라 사업대상을 고르게 선정하는 사업방식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학생의 성별이나 전공에 따라 사업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업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여학생과 인문계열 학생들에게서 사업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을 통한 취업지원이 졸업생의 취업성과를 평균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취업에 불리한

집단의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부가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고등교육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취업률을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의 개별적 노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 외에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과 같은 대학 기반 취업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대학의 취업률 개선도와 개선요인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졸업생의 취업성고를 활용하여 취업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강화하였지만, 더불어 각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들의 취업률 향상 노력은 단기간간에 더 많은 학생을 취업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의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즉, 학생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을 얻도록 현장경험이나 산학협력을 토대로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취업 관련 기술을 단기간에 높이는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강원준 외, 2008), 취업성고에 대한 책무가 강화될수록 이러한 추세는 심화될 것이다. 또한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열이나 예체능계열 학과를 폐지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학교의 취업성고를 높이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 대학취업지원사업의 효과가 대학특성에 따라 성과가 고르게 나타나면서도 취업에 불리한 여학생이나 인문계열 학생들 사이에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생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효과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취업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지방 사립대의 취업성고는 수도권 대학(국공립대와 사립대)과 지방 국·공립대뿐 아니라, 전문대와 비교할 때도 좋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소속 지역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의 입장에서 교육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정책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지방 대학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에서 지방대학과 같이 조건이 불리한 대학에 취업지원사업 방식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엄밀한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획수립 시부터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시행되어 그 성과는 2009년 졸업생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8월 또는 2009년 2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GOMS 2009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사업 이전에 각 대학의 취업프로그램

램의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당시의 취업 성과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업대상의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축적됨으로써 각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 관리연구**, 15(1), 17-36.
- 교육부(2014). **대학 교육의 질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 금재호(2004).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응용경제**, 6(3), 259-289.
- 김정숙(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효과. **교육과학연구**, 40, 141-165.
- 김희삼(2010). 지방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32, 55-92.
- 노동부(2005).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 사업계획(안) 및 직업진로지도 지원방안**.
- 노동부(2006a). **2006년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대학 명단**.
- 노동부(2006b). **2006년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추가선정대학 명단**.
- 노동부(2007). **'07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요강**.
- 노동부(2008).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요강**.
-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 논집**, 28(2), 1-27.
- 박성재,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박환보, 김성식(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3), 77-98.
- 방하남, 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 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신혜숙, 남수경, 민병철(2013).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211-235.
- 이규용, 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 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4.
- 이상호, 장옥희, 진대선(2009).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효과성 분석**. (주) 커리어파트너.
- 이정미, 이필남, 서영인, 나민주, 박소영, 이희숙(2010).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미(201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대, 윤형한(2007).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최동선, 강혜영(2006).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천순, 양병무(2006).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3), 1-26.
-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2011).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 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53-78.
- 채구목(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35-61.
- 채창균,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 최은옥, 김응권, 홍성창(2011). **잘 가르치는 대학 인재대국**. (이주호 외 저), 326-361.
- 황여정, 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23.
- Brewer, D. J., Eide, E., & Ehrenberg, R. G.(1996). Does it pay to attend an elite private college? Cross cohort evidence on the effects of college quality on earnings. NBER Working Paper 5613.
- Eide, E.(1994). College major choice and changes in the gender wage gap.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7, pp.55-64.
- Raudenbush, S. & Bryk, A.(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
- Rumberger, R. W. & Thomas, S. L.(1993). The economic returns to college major, quality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lysis of recent graduat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2(1), pp.1-19.

* 논문접수 2014년 5월 3일 / 1차 심사 2014년 6월 10일 / 게재승인 2014년 6월 22일

* 신혜숙: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CLA에서 교육통계 및 연구방법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영역은 다층모형, 다변량 통계분석, 학교책무성 평가 등이다.

* E-mail: hyesook@kangwon.ac.kr

* 민병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전공은 교육사회학이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강사를 역임하고 으며, 주요 관심영역은 학교효과, 교육불평등, Causal Inference 등이다.

* E-mail: bcmin80@gmail.com

* 남수경: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교육행정 및 재정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영역은 고등교육 재정정책 및 교육재정 전반이다.

* E-mail: beableto@kangwon.ac.kr

Abstract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funded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the Graduates' Employment Outcome

Shin, Hye Sook*
Min, Byeongcheol**
Nam, Sookyong***

As more focuses have been paid on 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s, government and colleges have offered various support programs to booster their employment such as the government-funded employment support program(GFSP).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is program based on actual employment results and proposed recommendations

For this, we analyzed data from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09' with various information on colleges by employing multilevel models to examine the effect of GFSP and explore any differential effects depending on various student and college factors.

The results indicate that 1) compared to non-GFSP universities, students' evaluation on the usability and participation rate on the university's employment support program was higher among the GFSP universities. 2) even though the probability of finding job was not different between GFSP and non-GFSP students, the quality of employment such as income and job quality was better in GFSP. 3) the effectiveness of GFSP was not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and location of the universities. However, it turned out that GFSP reduces the salary gap according to gender and university majo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continue to support GFSP especially focusing on increasing employment capacity for local universities. For accurate evaluation of GFSP, it is crucial to include plans for collecting data for performance evaluation.

Key words: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government-funded employment support program, employment statu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multilevel model, Quality of employment, occupation level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angwon National University